

1)

1987. 8. 4

북한에의 확립

은하 19. 10-11

71독 2 품등 의회

빌라도

- ① 빌라도의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
실권수도 있고 공권수도 있는 것이 맞다. 확립
- ② 잘못된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
제도화 권력 (보게로치) (그더크드)
- ③ 빌라도는 권력에 의지하고 있다.
- ④ 권력 확립에 의존하는 권력 상실
권력은 하느님에게 맡

타시즘

은하 19. 10-11

하느님이 하신 말씀

이것이 권력 = 타시즘

북한에의

북한에의 권력에 대한 근거 있는 확립

2)

그런데 여기 중은 한 함정이었다.

그것은 바로 軍隊律例(군대법령)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.

軍은 특징은 ① 명령의 불공

② 그 명령이 반하는 법(憲)을
준수하는 것은 신자(臣子)가
없다 (其有不遵)

③ 法은 法은 조항(條項)은
작다(小)다.

④ 이것은 법(法)의 권력(權力)은
지나지 않는다. 따라서 법(法)이
크트(大)한 것이다.

이 軍의 法(法)이 憲(憲)과 法(法)이
다시(又) 같다. 이 軍과 法(法) 사이에
어떤 人(人)도 法(法)이 有(有)한 二(二)권(權)
을 有(有)한 人(人)이 有(有)한 것이다.

그러므로 法(法)의 權(權)이 有(有)한 人(人)이
이 法(法)을 有(有)한 것이다.

3)

例 우리 경우

① 이승만은 軍に利用

완전 타사권 不可行

② 1960. 軍의 一部 勢力이 弱해져
이로써 내각이 奪權되

출발 界도 軍隊化

學界도 호국군化

~~공무원~~

정부가 師團化

이제 거슬리는 것은 거슬러 있다
치단

③ 1980년 8월 정부는 역시 軍力으로

내부 권력 투쟁까지 이기고

7월 연맹 아래 全權을 받들고

그 것으로 권력 행하

→ 국가의 한 가지 이념이 국가의 最高의
으로 最大의 利害, 그 결과로
軍의 통수권 變換을 알리는

4)

氏(何)로 불려져서 본뜻을 밝히지 못함
 → 국어 선생이 왔는데 대해 국어
 선생은 국왕, 그것도 흥분하게
 치하 정책이 강화, 그이름이 '국왕'
 국왕 정책, 그러나 국어 선생은 권투
 하는 것이다. 권투에 치국이 매
 3시간 정도, 국왕이 치면 된다

그러나 하종현, 이환영 등에게
 후대 교양의 성과를 시연으로 한
 것이다

(4) 1987년 6월 새헌법 제정
 국어 학회가 출판 되었다, 그런데
 이 출판물은 국문의 정치 참여에 관련된
 국구 발매

· 지난 7.7일 박희동의 노골적인
 선거의 사권 개입 기사를
 공개

이것은 국문교과를 열망하는 국문
~~교과서~~

5)

그러므로 도원 ~~하~~^한대 원대통령이
4. 정권당에게 대항 - 1. 반공 투쟁
도 위는은 결투 그대 흥해한 반공 투쟁
독행으로 하겠다는 충언을 하신것이다
국헌당하기 직

~~monoc jawab ism~~ ^{하느님} -

이것은 α 의 값은 $\frac{1}{2}$ 로 놓으면
 하려나.

그러면 이것이 내인 또 불행으로 볼
 수 있다. 그것은 하느님과 주 사이의
 어떤 천령 층층이 가로 채 버리는
 그러한 ~~이~~ ~~것~~ ~~의~~ ~~주~~ ~~사이~~ ~~에~~ ~~어~~
 어떤 것도 들어 가지 않아야 한다
 주와 할로 기르브르. 회개하는
 그것은 순교사 회개. 주와 직접 대
 면하는 것은 주와 하는 것 등이다.

